

KDI국제정책대학원 · 美인디애나大 오닐스쿨 기획예산처 방문 현장학습 · 정책토론회

- 한·미 대학(원)생 26명, 정책교육 과정 현장학습으로 기획예산처 방문
- 차세대 글로벌 인재들과 예산·재정 관료 간 열린 정책토론 진행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26.5.21.(목) KDI국제정책대학원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오닐스쿨(O’Neill School)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재정·정책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교육 과정 참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획처 방문 정책토론을 개최하였다.

< 기획처 현장학습·정책토론 개요 >

- ▶ (일시·장소) ‘26.5.21.(목) 10:00 ~ 12:00 / 기획예산처(정부세종청사)
- ▶ (참석) KDI국제정책대학원·美인디애나대학교 오닐스쿨 대학(원)생 및 교수 30여명, 기획처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강경표 미래비전 미션추진단장, 김건민 기금운용계획과장, 황유실 국제재정협력과장
- ▶ (주요내용) 한국 예산과정 강의, 기획처 소개, 자유 질의응답, 종합 정리

이번 정책토론은 5.18.(월)부터 6.14.(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교육 과정의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과정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 13명과 인디애나대학교 오닐스쿨 13명 등 총 26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며, 양교 학생들은 일대일 페어링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여 강의실 학습, 정부·공공기관 현장 방문, 실무자 토론, 합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처 방문은 한국의 재정운용 경험과 예산편성 체계를 한·미 학생들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처는 국가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예산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관 견학이 아니라, 한국의 예산과정과 재정전략을 실제 정책현장에서 이해하는 정책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기획처 관계자들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예산편성의 연계,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디지털·AI 전환기 예산제도 혁신, 한·미 예산편성 거버넌스 비교 등을 논의하였다.

기획처에서는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강경표 미래비전 미션추진단장 외에도 김건민 기금운용계획과장, 황유실 국제재정협력과장 등이 참석해 한국의 재정 운용 경험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였다. 기획처 참가자들은 기획처 역할과 기능, 거시 재정운용 기조와 분야별 예산편성 방향, 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의 연계 사례, 정부 기금 운용체계와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주제로 학생들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축적한 재정운용 경험을 글로벌 인재들과 직접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학생들의 신선한 질문은 우리 정책실무에도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본 과정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재정거버넌스를 세계와 공유하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사명에 부합하는 대표적 협력 모델”이라며, “美 공공행정 분야 세계적 명문인 인디애나대 오닐스쿨과의 이번 공동 프로그램이 한·미 정책교육 협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인디애나대 오닐스쿨은 이번 기획처 방문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서울시·대전시·세종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K-Water,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등 주요 정부·공공기관 현장학습을 이어갈 예정이며 6.12.(금) 최종 발표회를 통해 4주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황유실 (044-214-1930)
	국제재정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윤영준 (yoonyj95@korea.kr)

